

## Automobile of heat generation high molecular

김보미, 한현각\*, 정형기, 편유리  
순천향대학교  
(chemhan@sch.co.kr\*)

기존의 자동차에 사용되었던 원료는 폴리 우레탄, 폴리 카보네이트 등 다양한 편이나. 이러한 자동차 소재 쪽에서 원료로 쓰이는 물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러한 재료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고분자 물질 중 자체 발열성을 가질 수 있는 물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발열성 고분자를 개발 하는 동시에 상업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각종 첨가제가 고분자에 미치는 영향과 실험실의 온도 조성, 발열성 고분자를 혼합 하는 조건, 그리고 혼합의 균일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 하도록 한다.